제50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왕기상 5장 1절
1절부터...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ㄹ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툭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을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삯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해서 저희들은 에.....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에...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은 솔로몬의 혼자 힘으로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그 부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 앞서서 다윗의 계획이 있었고 다윗의 준비가 있었고 다윗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결심이 있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또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하나님의 궤는 성안 휘장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저지 하셨습니다.
왜냐? .....
다윗이 전쟁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1절부터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애기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2절, 3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를 흘린 그런 죄악 때문에 너는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은 성전 건축의 부적격자였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군이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것처럼 골리앗을 때려 죽이기도 했었죠.
그의 목을 잘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피흐린사람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위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성전건축을 하라는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
2절부터 5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일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출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구에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다윗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준비만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아들에게 건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일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이루지 못한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기는 모든 남은 평생를 걸쳐서 준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신신 당부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줬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또한 그러한 결심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역대하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신앙생활은 늘 결심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의 혼의 작용...우리의 혼의 작용은 지정의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지식...그리고 정서.... 그리고 의지.....
이건 신앙생활하는데도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에서 많은 지식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알고 믿게 되는거죠.
안다는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라를 통해서 말했던것처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닳을 때 우리는 감정의 변화가 생기죠.
때로는 기뻐하기도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슬퍼하기도 하고 ....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받았을때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 ....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참으로 많은 죄악들을....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앞에 돌이키는 마음....회개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주님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닿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의지를 갖죠...결심을 합니다.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택해야되죠.
주님말씀을 따를것인지....
자기의 소욕을 따라갈것인지....
성령을 따라 갈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것인지...
늘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 또한 군대를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해주셨죠...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을 완성이 됐습니다.
열왕기....열왕기상...
열왕기상..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성전 낙성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이 나와있는데...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8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
전쟁에서 기도하는 내용...그리고 죄악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계할 때 어떻게 용서해달라라는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에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들을 몇가지것을 좀

정리해 보면 역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의 삶이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 학생들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할것인지....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줘야 할 것도 있을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것들을
준비했던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될것이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위해서는 준비했던것들....
그건 다 물질적인 거였죠.
우리 또한 자기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유산으로 물려줄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앞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
몇 가지 교훈을 받자 면은....
첫째는 참된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교제했던곳....
에덴동산에서...첫번재 교제가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하나님앞에 제사드릴 때...
그 제단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됐었고,
솔로몬때 이르러 비로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다 허물어지고 이제 ....건물로서가 아닌 성전의 의미
새로운 의미의 성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흘만에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시대가 끝난후에 참성전....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은 때 ...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그의 성전을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도요한 또한 이 성전을 보았던 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
11장 1절, 2절....
또 15장 5절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요한은 하나님과 어린양이 참성전이라는 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볼 것을 그런날일 올
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참으로 깨닳는 그런 날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깨닳게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하나님이 계신 참된 성전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지어져가고 있는성전....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 공과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참된 성전의 의미를 깨닳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 아이러니한 일은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8절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저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전에 하나님앞에 그토록 겸비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매 기뻐했던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우상의 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였습니다.
다른신을 좇지 말아라 그런데 다른 신앞에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솔로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 오실때까지 동일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성령으로 구원받았지만..이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사도바울이 했던 간증이 참으로 우리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주님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젊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나이먹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짖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리라.
제가 1989년도 6월 30일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때에 제가 가장 막내였습니다.
저와 함께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주니품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몸된 교회안에서 굳건히 그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운데서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숭배하는 산당을 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공과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솔로몬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겁니다.
성진이 지어지는 터 또한 대단히 중요하죠.
성전을 지을 때 아무데나 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리고 이 터는 곧 예수그리스도니라]
우리가 주님위에 건축해야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우리의 믿음 ....예수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위에 우리가 건축되고 있는지...
 모래밭이 아닌 반석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먼저 자기가 어디위에 건축되고 있는지...
그 터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될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지을것인지...
주님위에 건축할 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웠을때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런것들은 다 연단되어야만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것들이 다음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만됩니다.
주님앞에 남을 있을 그런 영광들일 될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터 위에서 무엇으로 건축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질때는 침묵속에서 지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어질 때 교회안에서는 참으로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는
필요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죠.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없습니다.
어른들의 호령이 필요없습니다.
성령이 각기 알아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경건한 가운데...조용한 가운데...교회는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불과 지진가운데 나탄 것이 아닌 아주 세미한 음성가운데
나타났었고,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닿게 해주시고 각 사람을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의 호령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인 그러한 잡음은
들리지 않는게 합당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교제하실 때 큰소리내는 것 참으로 주의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먼저 주님께 물어보는게 필요하죠.
열왕기상 6장...열왕기상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미 전을 만들기전에 다 다듬었던 것들이 와기지고 차곡차곡 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인위적으로 따른일은 필요없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안에서...교회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해야 될겁니다.
인간적인 가르침이 없어야 될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에 대한 여라가지 교훈들을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생활이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변화시킬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